일화집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일화집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주체108(2019)년

책을 내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8년이 지났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아직 그 한돌기도 채우지 못한 세월이다.

하지만 몇해전, 한해전, 한달전과 아득한 격차를 이루며 천지지변을 일으킨 이 땅의 모습을 다 담아보기에는 보통의 수십년 지어 세기의 년륜으로도 모자라는 나날이였다.

그이의 령도아래 조선의 강산이 문명의 별천지로 나날이 전변되는 건설의 대번영기, 나라의 전반적부문에서 아침저녁으로 변이 나는 만리마의 시대가 펼쳐졌다.

눈으로 보고 말로 하기에는 너무도 쉽고 평범하지만 이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온 한해를 현지지도의 길에서 눈비속도 헤쳐야 했고 삼복철의 무더운 열풍도 이겨내서야 하였다.

령도자의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현지지도는 그대로 조선의 국력이 억척같이 다져지게 하는 원동력이며 조선인민을 기적의 창조자, 행복의 향유자로 되게 하는 자양분으로 된다.

도서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남기신 일화들중의 일부가 편집되였다.

차 례

후대들을 위하여 · · · · · · · · · · · · 115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합숙생들의 친어버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곳에 인민군군인들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멋들어지게 건설하였다.

이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3(2014)년 4월 29일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1호동현관으로 들어서시여 1층 4호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전실에 걸어놓은 거울이며 방안의 벽장을 일일이 살펴보신 그이께서는 지금 가구를 일률적으로 네모반듯하게 만드는데 가구는 건물의 구조에 어울리고 사람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철저히 편리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벽장이 세칸으로 되여있는데 아래칸에 이불을 넣을수 있게 한것은 좋은데 옷을 걸어놓는 칸은 길이가 짧아 치마저고리를 걸어놓으면 그것이 접힐것이라고 하시며 녀성

들이 옷을 걸어놓는 칸은 길이를 길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호실의 난방문제까지 세심히 관심하신 그이께서는 다시금 방안을 둘러보시다가 문득 일군들에게 호실에 침대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래 조선사람들은 장판을 한 온돌방바닥에서 잠을 자는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장판을 한 방바닥에서 잠을 잔다는 말은 하여도 리놀리움을 깐 바닥에서 잠을 잔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합숙생들이 리놀리움을 깐 방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나직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미처 침대문제까지 생각지 못하였던 일군들은 얼굴을 붉히였다.

《합숙생들이 침대에서 잠을 잘수 있게 낮은 침대를 만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할것 같습니다. 침대를 련결식으로 만들되 밑에는 빼람을 만들어주어 거기에 필요한 사품들을 넣을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여 로동자합숙에 침대가 다시 설치되게 되였다.

명당자리

주체103(2014)년 1월 중순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의 위치를 잡아주시기 위해 현지로 향하시였다. 현지로 가는 로정은 참으로 험하였다. 그것은 말그대로 길 아닌 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차가 제일 선두에서 달리였는데 뽀얗게 피여오르는 흙먼지로 하여 앞차의 형태를 겨우 분간할수 있었다. 비좁고 험한 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갈림길에 이르면 그이께서 친히 지도를 펼치시고 운전사에게 길을 가리켜주시며 오랜 시간 달려서야 드디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였다.

우거진 나무들사이로 연풍호의 자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그곳에는 오솔길조차 없었다. 군데군데 녹지 않은 눈들과 가랑잎들이 쌓여있는 땅우에 첫 자욱을 찍으시며 잡관목들을 몸소 헤치시고 호수기슭으로 향하시는 그이의 신발과 옷자락에는 먼지가 두텁게 올라있었다.

이윽고 호수가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한겨울의 추위로 얼어붙은 호수와 멀리 맞은켠에 자리잡고있는 연풍소년단야영소를 바라

보시며 국가과학원 책임일군에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오늘 국가과학원 원장을 연풍호에 데리고 온것은 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할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호수가의 풍치를 다시한번 둘러보며 그이께서는 물으시였다.

《이 자리가 마음에 듭니까?》

《경애하는 원수님, 명당자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이께서는 가지고오신 문건철에서 과학자휴양소 형성안을 꺼내드시였다.

그것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책임일군에게 자신께서 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할 자리를 잡아주려고 지난해 여름 두번이나 연풍호에 와서 배를 타고 호수주변을 다 돌아보았다고, 그렇게 하여 이 자리를 찾아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소어린 시선으로 손에 드신 형성안들과 거기에 그려진 건물들이 들어앉게 될 연풍호기슭을 번갈아보시다가 수행한 일군들에게 만족한 어조로 이 자리가 과학자휴양소자리로서는 명당자리라고, 여름철에 이곳에 와보니 공기도 좋고 숲이 무성하여 풍치가 정말 멋있었다고, 오늘 보니 겨울철풍경도 그에 못지 않게 멋있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금방석

주체103(2014)년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아주시였다.

야외물놀이장이며 전자도서실 등을 돌아보시며 시종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던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그야말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금방석입니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당에서 정말 큰마음을 먹고 건설한 휴양소입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금방석!

당(조선로동당)에서 큰마음을 먹고 건설한 휴양소!

참으로 뜻이 깊은 말씀이시였다.

이어 그이께서 종합봉사소를 돌아보실 때였다.

1층홀에 꾸려져있는 기념품매대앞으로 다가가신 그이께서는 물으시였다.

《무엇을 팔아주자고 합니까?》

일군들이 휴양생들에게 기념품을 팔아주려고 한다고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휴양소는 휴양생들이 식사를 잘하고 마음껏 휴식하는 곳이지 상품을 팔아주는 곳이 아니라고 지적하시는것이였다.

계속하여 연회장을 돌아보시고 다시 기념품매대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였다.

《여기에 무엇을 해놓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데 그럼 무엇을 하겠는가고 몇번이나 뇌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기념품매대를 사진현상설비를 차려놓고 휴양생들이 찍은 사진을 현상해주는 장소로 리용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휴양생들이 사진기를 가지고와서 경치좋은 곳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겠는데 그것을 제때에 현상하여 도포까지 해주면 아주 좋을것이다. 휴양소에 왔다가 기념으로 남는것은 사진밖에 없다. 과학자들이 휴양소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가서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과학자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좋아할것이다. 휴양소에 좋은 사진설비를 일식으로 갖추어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

교과서적인 공장

억수로 비가 쏟아지던 주체105(2016)년 6월 중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고있는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종합분석실을 찾으시여 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지혜로 높은 수준의 분석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위생학적지표와 영양분석지표들을 공장자체로 분석함으로써 품질관리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고있는데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설비들을 둘러보시며 종합분석실을 꾸린것만 보아도 평양곡산공장이 전국적인 모범단위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공장을 개건하면서 분석설비들을 거의다 국산화하였다는데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수입하던 분석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쓰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설비들을 국산화하라는것은 생산설비들만이 아니라 이 공장에서처럼 분석설비들을 비롯한 모든 설비들을 다 국산화하라는것이라고, 이것이 우리 당(조선로동당)의 사상이고 의도라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평양곡산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본보기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표준으로 내세울만 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입니다.》

그이의 과분한 치하의 말씀에 공장지배인은 몸둘바를 몰랐다.

피부식료공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2월초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화장품의 질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화장품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통속적으로 이야기해주시였다.

《화장품공장은 피부식료공장이나 같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사는것처럼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해주는 피부는 화장품을 먹고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지표도 많다고, 좋은 화장품을 써야 그 성분들이 피부에 스며들어 살결의 색갈을 아름답게 하고 탄력성과 부드러움을 주며 사람들이 생기가 넘쳐보이도록 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화장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천연적이고 자극이 적은것을 비롯한 안전성과 관련한 지표들과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있게 해주는것과 같은 기능적인 지표들을 개선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일반화장품뿐아니라 건강에 유익하고 치료작용을 하는 치료용화장품들,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있게 해주는 기능성화장품들도 연구개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공장에서 새 제품개발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생산을 과학화하기 위하여서는 보건성 피부병예방원과 협동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보건성 피부병예방원과 협동연구를 잘하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보호하며 주근깨를 없애고 컴컴한 얼굴색을 미백하는것과 같은 화장품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강냉이로 만든 당은 주체당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종합조종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통합생산체계구축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공장을 현대화하여 로력이 얼마나 절약되였는가에 대해 알아보시고서는 대단하다고,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로력절약형공장이라고 만족해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연질당과류를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강냉이로 만든 물엿을 가지고 연질사탕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고 하시면서 《강냉이로 만든 당은 주체당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강냉이를 가공하여 당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해놓은것이 그리도 기쁘고 대견하시여 그것을 주체당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백합과자맛까지 보아주시며 맛이 아주 좋다고 치하도 해주시면서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다 돌아보시고 공장을 떠나실 때에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평양곡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주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리라고 믿습니다.》

중시하신 문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두메산골인 평안북도 창성군에 있는 식료공장을 찾으신 날은 주체102(2013)년 6월 13일이였다.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며 료해도 하시고 가르치심도 주시던 그이께서는 창성식료공장에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설비들을 잘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돌려 생산을 계속 늘여나가야 하며 반드시 확대재생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창성식료공장을 중시하는것은 비단 이 공장 하나만 추켜세우자는것이 아니라 이 공장을 본보기로, 불씨로 하여 전국의 시, 군들에 있는 지방공업공장들이 다 일떠서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공장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성식료공장을 본보기,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찾아오시였다는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였다.

15분동안 돌아보신 제품견본실

주체105(2016)년 6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체육기자재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생산하여 충분히 보장해주어 온 나라가 체육열풍으로 끓어번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는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만들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권투장갑을 손에 끼고 공장일군에게 즐거운 우스개소리를 하시면서도 그 질에 대해 강조하시고 정구공을 보시면서는 지난 시기처럼 이만하면 됐다, 옛날에는 이런 체육기자재도 없었는데 하는 식으로 지금의 제품들을 가지고 만족해하면 체육기자재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고 거듭 이르시며 말씀하시였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는 질좋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인민들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즐겨찾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시면서 대중체육기자재라고 하여 질을 보장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자신께서는 체육기자재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매우 중시한다고, 그렇기때문에 오늘 제품견본실의 20m도 안되는 구간을 매 견본제품의 질을 가늠해보면서 15분동안 돌아보았다고, 그에 대하여 공장종업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1월 17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공장을 돌아보니 이 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이 사람들속에서 소문이 날만 하다고, 며칠전에 일군들과 무슨 문제를 토론할 때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군들가운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이 공장 제품이 인민들속에 확고히 자리잡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지금 이 공장에서 만든 식료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것만큼 공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생산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식료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선 편리성

주체101(2012)년 5월말 창전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1호동에 위치한 20층살림집에까지 오르신 그이께서는 건축효과를 주기 위하여 15층과 20층사이 계단실들의 바깥벽 중간에 로대를 내고 전면창을 하는것으로 시공하였다는것을 아시고 쓸데없는 일을 하였다고, 그 로대는 웃층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도, 아래층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도 필요없는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루를 박아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살림집건설에서는 건축효과보다도 거기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편리를 우선시하여야 합니다.》

기대공의 부채질

언제인가 평양양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품견본실로 가실 때였다. 복도시창너머로 기대공이 부채질을 하는 모습이 바라보이였다.

한 일군이 작업장에 열처리설비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다보니 실내온도가 높다고 보고드리였다.

그이께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땀을 흘리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지적하시였다.

한 기대공이 부채질하는 세부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로동자들의 로동조건개선문제와 결부시키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일군들은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의 기대를 헤아리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능력확장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된 박막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능력확장된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온실들에서는 단순히 연구사업을 하고 운영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실지로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남새를 생산하게 하신것은 연구소가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주신 조치인데 장군님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장군님의 인민들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인 평양남새과학연구소가 실지로 인민들에게 덕을 주는 곳으로 되기를 바라시는 간곡한 당부가 어린 말씀이였다.

잠시 동안을 두셨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일군에게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생산한 남새들을 어디에 공급할 계획인가고 물으시였다.

아직 계획한것이 없다는 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생산한 남새들을 평양시안의 봉사망들에 내보내여 인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한다고, 아마 인민들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생산한 남새를 먹어보게 되기를 기대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종자가 기본

어느해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으시여 콤퓨터조종실에 들리시였을 때

였다.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여 콤퓨터로 영양액농도와 pH(페하), 영양액공급량, 환경관리를 자동조종하고 있는것이 현시된 텔레비죤화면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조종실운영정형을 일군으로부터 보고받으시였다.

온실남새재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주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서도 주의깊게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새로운 품종의 남새를 많이 연구하고 생산하여 연구소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가 온실남새를 많이 생산할데 대한 당(조선로동당)의 방침관철에서 마땅히 기수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실남새생산을 늘이자면 좋은 품종의 종자들을 육종해내고 남새생산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온실남새생산에서는 종자문제와 현대화문제, 이 두가지를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남새생산에서도 종자가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좋은 품종의 종자가 없어 생산을 늘이지 못하고있다고, 앞으로 박막온실을 많이 건설하여 온실남새생산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종자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연구소책임일군의 뇌리에는 연구소에 도착하시자

마자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푸른 인삼종자를 받았는가? …

그때 일군은 처음 듣는 종자이름이여서 갑자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푸른 인삼은 영양가가 높다고 하시면서 종자와 재배기술지도서를 보내주도록 하겠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해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남새육종정형을 보고받으실 때에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남새원종을 보장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고 조금전에도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남새종자를 육종하여 널리 퍼치며 수확고가 높지 못한 남새품종들을 다수확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소팔아 소고기사먹는 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 2시험장 수경온실포전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여기서는 도마도를 전문으로 재배하고있었는데 이

날은 마침 수확하는 날이여서 끝간데없이 펼쳐진 온실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경온실의 전경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연구소일군에게 연구소에서는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경영관리를 짜고들어야 한다고 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경영관리를 소팔아 소고기를 사먹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해학적으로 이르신 그이께서는 걸음을 옮기시다가 도마도상자에서 빨갛게 무르익은 도마도 한알을 손에 드시고 연구사들과 재배공들의 남모르는 수고도 헤아려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남새종자를 많이 연구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좋은 남새품종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온실남새의 품종수를 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영양가와 수확고가 높고 맛이 좋은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되고있는 온실남새종자들이 어떤것이 있는가 조사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에서 좋은 품종의 남새종자를 육종해내자면 첨단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사업에서 핵은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좋은 품종의 남새종자를 연구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마도와 오이, 고추를 재배

하고있는 1시험장 수경온실에 들리시여서는 고추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17.6m의 정점에 오르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중에 있는 릉라물놀이장을 찾으시였다.

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일일이 일군들의 시야를 틔워주시던 그이께서 건설장에 불어치는 먼지바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물미끄럼대우에 오르려고 하실 때였다.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불비한 계단을 따라 물미끄럼대우에 올라가는것이 너무도 위험해 일군들은 그이께 그만두실것을 간절히 아뢰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에게 그래도 올라가보아야 한다시며 끝내 층층이 높은 계단을 따라 물미끄럼대의 정점에까지 올라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물미끄럼대설비가 굉장하다고 만족해하시였다.

물미끄럼대에는 주로가 4개 있었는데 제일 긴 주로의 길이가 127m였으며 물미끄럼대정점의 높이는 17.6m였다.

그이께서는 대단하다고 하시며 지금 자신께서 서 있는 물미끄럼대정점의 높이가 17.6m이라는데 릉라다리로 지나다니면서 볼 때에는 그리 높은것 같지 않았지만 정작 정점에 올라와 아래를 내려다보니 좀 긴장된다고, 아마 수영복을 입고 올라왔다가 무서워 물미끄럼대를 타지 않고 다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물미끄럼대는 청년들에게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줄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물미끄럼대가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할것이라고, 물미끄럼대를 타는 사람들뿐아니라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좋아할것이라고, 담이 작은 사람들은 물미끄럼대를 타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세라

주체101(2012)년 6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릉라물놀이장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공사를 빠른 시일에 완공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쓴데 대해 치하해주시면

서 물놀이장건설에서 소홀히 한 문제라도 있으신듯 마음을 놓지 못하시였다.

- 물미끄럼대시공을 잘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물미끄럼대는 주로의 이음짬들이 매끈해야 한다.

- 물미끄럼대주로의 출발지점들에 사람들에게 출발신호를 주는 체계가 되여있는지 모르겠다. 물미끄럼대주로들의 경사가 급하고 다음단으로 다시 오르게 되여있는 주로도 있으므로 출발신호를 주지 않으면 성미가 급한 청년들이 련속 주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먼저 내려간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날수 있다. 물미끄럼대의 주로에 빛수감장치를 설치하여 한사람이 거의 마지막까지 내려갔을 때 다음 사람이 출발하도록 신호를 주어야 한다.

- 수조의 바닥과 벽에는 청색타일을 붙이고 조약대의 벽에는 흰색타일을 붙여야 하겠다. 그렇게 하면 무더운 여름철에 물놀이장에 온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신선한 감을 느끼게 될것이다.

- 사람들이 모래불에서 해빛쪼이기를 하고 수조에 다시 들어갈 때에는 몸을 씻고 들어갈수 있게 야외샤와대까지 설치하여놓으면 이 물놀이장이 야외물놀이장으로서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탈의샤와실건물의 채

양을 폭이 넓게 형성하여 사람들의 휴식장소를 마련해준것이며 건물안에 수영복을 팔아주는 상점, 카운터, 오락장, 샤와실도 꾸리려는데 대하여서도 료해하시고 일군들이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색을 많이 하였다는것이 알린다고, 아주 만족하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당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해 5월에 이어 7월에 또다시 류경원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미안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병원처럼 꾸렸다, 종합미안기에 확대경이 붙어있는데 아마 사람들의 얼굴을 확대하여 피부의 질을 가늠해보는 장치인것 같다, 그런데 이 종합미안기를 제대로 쓸줄 아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에게 미안을 해준다고 하다가 도리여 곰보를 만들어놓으면 야단이다, 누구나 여기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고와지게 하여야 한다, 미안실에 있는 안락의자의 색갈이 이 방안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랭실에 들리시여서는 랭실의 온도가 −7℃까지 내려간다는데 어장에서 잡은 다랑어를 넣어

두는 랭동창고 같다, 바닥과 벽에 마감건재를 대여야 지 지금같아서는 사람들이 목욕을 한 다음 스산하여 랭실에 들어가려 하지 않을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물고기를 랭동시키는 곳이나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리발실을 찾으시여서는 리발사들이 일을 끝낸 다음 손을 소독하기 위해 소독수를 소랭이에 담아놓았는데 그렇게 하는것은 좋지 않다, 손소독수를 소랭이에 담아놓으면 몇사람만 손을 씻어도 그것이 구정물로 되고만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가족목욕탕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목욕탕접수칸벽에 목욕탕리용질서알림판을 액틀에 넣어 걸어놓았는데 멀리서 보면 표창장 같아보인다, 리용질서알림판 같은것은 말그대로 리용질서와 주의사항 같은것을 리해하기 쉽게 그림과 배합하여 직관적으로 만들어놓아야 한다, 여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올수 있으므로 누구나 알림판을 보면 주의사항을 쉽게 알수 있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식들을 직관적으로 해놓는것이 좋다, 말하자면 담배대를 그려놓고 곱하기표식을 하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알려주는것처럼 직관적으로 리해하기 쉬운 그림이나 기호 같은것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안마실의 침대에 구멍이 없으면 안마를 받을 때

얼굴을 침대에 정면으로 대고 엎디여있을수 없기때문에 목이 아프다고 지적하신 그이께서는 치료체육실을 돌아보시면서는 자외선침대를 보내주겠으니 치료체육실에 그것을 놓고 나머지공간에는 어떤 기재들을 더 놓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해보아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이날 현지지도를 마치신 후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일군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면서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인 류경원을 손색없이 꾸려 류경원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참된 봉사기지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얼음판까지 만져보시다

삼복철의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인민야외빙상장을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빙상홀과 스케트 내주는 곳, 선수대기 및 휴게실, 의료실, 방송실, 감시실 등으로 이루어진 인민야외빙상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드넓은 공간에 시원하게 펼쳐진 얼음판에 몸소 들어서시여 무릎을 굽혀앉으시며 손으로 얼음판을 만져보시고 삼복더위에 얼음을 얼구어 야외에서 스케트를 탄다는것이 참 희한한 일이라고, 정말 잘했다고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너무도 기쁘시여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어 얼음깎는기계도 보아주시고 빙상장의 운영계획도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야외빙상장의 분위기가 참으로 좋다고 하시며 또다시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인민야외빙상장은 건축형식과 내용이 새롭고 특색이 있을뿐아니라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을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도 제시하시였다.

어둠이 질게 드리운 밖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인민야외빙상장의 앞공지를 보시면서 여기에 로라스케트장까지 꾸려주면 다기능스케트장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무서워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하다

어느해 5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급강하탑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급강하탑에서 사람들은 최고 48m까지 오를수 있었다. 급강하탑운영방안은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우로 올리쏘는것과 아래로 내리쏘는것이 결합된 1방안을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였으며 또 반면에 제일 급해하였다. 특히 허공에서 초당 15m의 속도로 급강하할 때 사람들이 짓는 각이한 표정은 웃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급강하탑을 1방안대로 움직여보도록 하시고 일군들이 급강하탑을 타보아야 설계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시며 일군들이 급강하탑을 다 타보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따라 일군들이 급강하탑에 올랐고 잠시후에는 급강하탑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급강하탑에 오른 일군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그런데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급강하탑좌석에 앉아 맨 꼭

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었는데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마 너무 무서워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하는것 같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의 편리부터 생각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래상점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매대들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일용잡화매대에 있는 안경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왔는데 다시 가보자고 하시며 안경진렬대앞으로 되돌아가시였다.

각종 색안경과 도수안경이 일매지게 꽂혀있는 진렬대에서 검은색안경을 뽑으시던 그이의 안광에 엷은 그늘이 스치였다.

(왜 그러실가?)

아무리 봐도 손색이 없는 안경들을 보며 상점일군은 영문을 알수 없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안경진렬대가 안경을 뽑기 불편하게 되여있습니다. 안경진렬대는 빙빙 돌아가게 만들어놓아야 손님들

이 안경을 고르기 더 편리할것입니다.》

언제나 인민들의 편리부터 생각하시며 안경진렬대의 형태까지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다심한 은정에 상점일군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필수소비품

어느해 7월 평양양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견본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양말제품들이 주런이 전시되여있는 것을 바라보시며 양말을 피복공업에서 무엇이라고 규정해야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물으심에 누구 하나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양말이 옷차림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딱히 규정지어놓은것이 없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잠잠해있는 공장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확정적인 어조로 양말은 필수소비품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필수소비품!

그이의 말씀은 짧았으나 남긴 여운은 참으로 컸다.

기호에 맞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양말공장 제품견본실에 진렬된 양말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다가 하늘색이 나는 양말을 가리키시며 녀성들이 이런 양말은 좋아하지 않을것이라고, 생산현장을 돌아보면서도 말하였지만 양말의 색갈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양말의 색갈과 문양을 시대적요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도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양말의 색갈과 문양을 시대적요구와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잘 정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옷이나 양말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높아지기마련입니다. 사람들이 걸상에 앉을 때 바지가랭이가 우로 올라가면서 양말이 보이는데 구두나 바지의 색갈과 어울리지 않는 알락달락한 양말을 신으면 보기 싫습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양말도안현상모집사업도 하고 다른 나라의것도 많이 참고하여 양말도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양말도안을 다른 나라의것을 참고하여 만든다고 하면서 양말의 문양을 추상파그림같이 하지

말고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현대감이 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연구소건설의 주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중에 있던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CT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연구소일군은 인츰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그것은 최신형의 CT값이 엄청나기에 제기하지 못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의 속마음을 다 읽으신듯 자신께서 필요한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꼭 해결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의 가슴은 찌릿이 젖어들어 정말 고맙다고 목메여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원장동무가 나를 손님처럼 생각하는것같은데 나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건설의 주인입니다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일군은 애써 눈물을 감추려고 했지만 종시 손수건을 적시고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건물이나 짓고 이름이나 별도로 단다고 하여 모든것이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녀성들속에서 발생하는 유선증과 유선암을 치료할수 있는 림상경험이 풍부한 능력있는 의사들과 연구사들을 배치하고 첨단설비들을 차려놓는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정상적인 검진체계를 세워 유선암을 미연에 방지하여야지 의사들이 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이나 하고 자기할바를 다했다고 우쭐해하면 안된다고 하시였다.

바로 지어주신 연구소이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아주시였을 당시 연구소의 이름은 유선쎈터로 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유선쎈터라는 이름이 적합한것 같지 않다. 사실 여기는 녀성들의 유선증과 유선암을 치료하는 곳이므로 쎈터라고 하는것은 잘 맞지 않다. 지금 평양산원에 유선종양과가 있는것만큼 이 건물을 독자적으

로 유선쎈터라고 하는것보다 유선종양과의 능력을 확장한것으로 하면 안되겠는가 하는것이다. 우리가 이 건물을 건설하는것은 녀성들속에서 발생하는 유선증과 유선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확장하자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물을 별도로 평양산원기구에서 떼내여 유선쎈터라고 하지 말고 평양산원에 소속시켜놓는것이 좋을것 같다. 이 건물이 평양산원에 붙어있는것만큼 유선종양연구소라고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서는 유선증과 유선암에 대하여 연구도 하고 치료도 하기때문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을것 같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라고 하면 학술적으로도 탈선되지 않을뿐아니라 유선쎈터라고 하는것보다 낫다. …

관심하신 안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해 4월 완공단계에 이른 릉라곱등어관 내부를 돌아보실 때였다.

관람석에 설치한 의자를 보아주시며 일군들의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만족한 표정으로 구획별로 색갈이 다른 의자를 놓겠다고 하는데 관람표의 색갈도 의자색갈과 같이 만들어주면 관람자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편리할것이라고 하시고는 무엇을 찾으시는듯 곱등어관의 내부를 세세히 둘러보시였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모두가 여기저기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곱등어관종합안내도를 잘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곱등어관이 완공도 되기 전에 벌써 안내도문제를 관심하시는데 대해 일군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자 그이께서는 간곡히 이르시였다.

내가 인민극장에 가보니 극장종합안내도를 설계도면과 같이 만들어놓았기때문에 비판하였다. 곱등어관종합안내도를 관람홀로 들어가는 통로들과 청량음료매대, 과학기술보급실, 위생실로 가는 통로들을 찾아보기 쉽게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러시고는 잠시후 릉라도에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유희장뿐아니라 희한한 곱등어관까지 건설해놓으면 인민의 유원지로서는 최고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금까지 우리 인민들이 텔레비죤으로만 보아오던 곱등어교예를 이제는 곱등어관에 와서 직접 보게 되였으니 내 마음도 흐뭇합니다.》

명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관준비를 하고있던 릉라곱등어관에 또다시 나오시였다.

관람석에 들어서시여 수수한 관람석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대쪽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다가 한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저 무대가 국제적기준에 부합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건설장의 일군들은 곱등어관의 무대가 아주 손색없이 꾸려졌다고 자부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이께서는 《나는 반대입니다.》라고 하시더니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공연무대바닥에 다른 나라들에서 한것처럼 청색을 칠하였는데 모래불과 같은 색을 칠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무대의 배경을 바다기슭으로 형상하였기때문에 무대바닥을 모래가 파도에 밀려나온것처럼 모래와 같은 색갈로 처리하면 조화가 더 잘될수 있다. 곱등어관무대를 국제적기준에 맞추어 청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해도 우리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생각하고계시는 착상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무대에 장식물들을 잘 배합하여 바다가와 같은 양상을 띠게 하여야 합니다. 무대바닥을 모래와 같은 색갈로 처리하여 바다기슭처럼 보이게 하고 바위장식앞에 수지로 만든 나무들과 해당화를 가져다놓으면 실지 바다와 같은 맛이 안겨올것입니다.》

정말 바다기슭의 풍경을 방불하게 형상할수 있는 명안이였다.

어항이 아니라 텔레비죤을

개관준비를 다그치고있던 릉라곱등어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층에 꾸려진 자연동굴식과학기술지식보급실(당시)을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입구에서 바다속의 바위와 동식물들을 형상한 벽과 천정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며 전번에 왔을 때보다 더 잘 꾸렸다고 치하해주시다가 벽면에 뚫어놓은 3개의 구멍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여기에 무엇을 설치하려고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로부터 자연동굴벽에 있는 개구에 어항을

설치하느냐 텔레비죤을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론의되고있다는데 대한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방이름이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이 아닌가고 되물으시고나서 즉석에서 선을 그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항을 설치하여서는 의의가 없다, 여기에 어항을 설치하고 몇마리의 산물고기나 보여주는것은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어항을 설치하면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의 사명이 달라진다, 여기에 와서 어항속에 있는 물고기를 볼바에는 집에서 어항을 들여다보는것이 낫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벽에는 어항이 아니라 텔레비죤을 설치하고 다종다양한 물고기들의 활동자료를 비롯한 바다의 세계를 편집하여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릉라곱등어관에서 해당 기관들과 련계하여 과학기술자료들을 보장받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애국자가정

창전거리가 새로 일떠섰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전거리의 새 집을 받고 입사한 어느 한 가정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새집들이를 한 자식의 집을 찾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매 방들을 돌아보시며 방이 모두 몇칸인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 전기는 잘 오는가 등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세면장까지 들어가시여 손수 수도꼭지를 여시고 흐르는 물에 손을 대보시며 물이 잘 나온다고 기뻐하신 그이께서는 다시 공동살림방으로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든이 가까와오는 이 집 할머니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여 의자에 앉혀주시고 자신께서도 그옆에 앉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집 식구들의 직업을 물으시였다.

세대주는 평양기계대학 교원이고 안해는 평양동대원중학교(당시) 교원이며 맏딸은 평양새살림중학교(당시) 교원, 둘째딸은 평천공업대학 분교 교원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이 집 세대주는 평양기계대학 교원이고 안해는 평양동대원중학교 교원이며 맏딸은 평양새살림중학교 교원, 둘째딸은 평천공업대학 분교 교원이면 교육자가정입니다.》

그러시면서 세대주와 안해, 두 딸을 정겨운 시선으로 여겨보시며 이 집에 대학교원도 중학교교원도 다

있는데 대학교육도 중요하지만 중학교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교육사업을 대단히 중시하고있습니다.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관련되여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세대주와 안해, 딸들이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있는가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시고 대견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 집의 안해는 물리교원이고 딸들은 수학교원들이면 다 중요한 과목을 가르치고있습니다. 수학, 물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 교육자가정의 선생님들이 자기 사업을 더 잘해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자에서 내려앉으시여 손수 방바닥을 짚어보시고 방바닥에 앉아보니 좀 차다고 하시며 겨울에 집안이 춥지 않겠는가 념려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대주와 안해에게 이제는 이 살림집에 입사하여 한동안 살아보았는데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집구조가 어떤가, 시공을 잘하였는가, 못하였는가, 갖추어진 비품이 마음에 드는가 안드는가 하는것은 집주인들의 말을 들어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하나도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집이 차례질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안주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집주인들이 살림집이 좋다면 정말 좋은것입니다.

나도 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시고는 가지고오신 성냥도 넘겨주시고 술로 축배도 손수 부어주시였으며 천연색텔레비죤과 그릇묶음, 어린이용도서들도 넘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집 할머니가 텔레비죤을 보는것을 제일 좋아한다는것을 아시고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아플것 같으니 여기 긴 안락의자에 앉아 보면 되겠다고 하시며 텔레비죤을 볼 자리까지 정해주시였다.

그러시고나신 그이께서는 집주인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자신께서는 군인가정, 예술인가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교육자가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 가정에서는 부모들뿐아니라 딸들도 다 교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교육자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묵묵히 량심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입니다.》

《덕을 크게 본셈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전거리에 새로 입사한 로동자가정을 찾으시였다.

집주인들은 가슴속에 넘쳐나는 감격과 고마움을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시며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새집들이를 한 동무들을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가족들이 마중나와 인사를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따뜻이 손을 잡아주시는 그이께 먼저 이 집 세대주가 중구역도시미화사업소 로동자라고 말씀드린 다음 안해 역시 평양우편국 경상체신분소 우편통신원이라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로동자가정이라고 하시며 무척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집주인내외옆에 서있는 둘째아들앞으로 다가가시여 허리를 굽히시고 그 애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며 물으시였다.

《이름이 뭐냐?》

《박훈입니다.》

《몇살이냐?》

《8살입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김성주소학교 2학년 1반에 다닙니다.》

《자, 빨리 들어가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훈이의 손목을 잡고 집안으로 먼저 들어가시였다. 전실을 지나 넓은 안방에 들어가신 그이께서는 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였다.

집주인들은 그이의 뒤를 따라 방안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어려워서 선뜻 앉지 못하고 그냥 서있었다.

그러는 그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집주인들도 어서 가까이에 와서 앉으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집주인들은 그이앞에 나란히 앉았다. 그때 집주인들은 너무 긴장하다나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맨바닥에 앉아계시는데 방석을 깔아드릴 생각도 미처 못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다정하신 음성으로 집주인들에게 물으시였다.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길건너 대동문동의 한칸짜리 살림집에서 살았습니다.》

《동무네 가정이 그전에는 대동문동의 한칸짜리 살림집에서 살다가 이번에 5칸짜리인 이 살림집을 받고 입사하였으면 덕을 크게 본셈입니다.》

《원수님, 집이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들은 젖어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동무네 부부가 집이 정말 좋다고, 이런 훌륭한 집을 주어 대단히 고맙다고 하는데 살림집을 받은 심정이 남다를것입니다.》

집주인들은 정말 꿈같은 그 심정을 형언할 길이 없었다.

편안하면서도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중의 선경종합식당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순대내포국집앞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순대내포국집앞에 오시여 란간을 두손으로 잡으신 그이께서는 걱정어린 음성으로 2층 관통홀과 계단

에 설치한 란간의 란주들사이간격이 넓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란간과 바닥사이공간의 너비를 가늠해보시며 물으시였다.

《이렇게 되면 미끄러지지 않겠소?》

란간에 강질유리를 대려고 한다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러면 좋다고 하시더니 란주로 세운 불수강관을 잡으시고 이런것으로 가로막아도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였다.

《어린이들이 떨어질수 있는것만큼 란간에 설치할 강질유리가 준비되여있으면 강질유리도 설치하고 란주도 더 설치하여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편안하면서도 안정감을 주게 하여야 합니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관심은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돌려지고있었다.

체육인식당에서

어느해 3월 8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춘거리 체육촌에 자리잡고있는 체육인식당을 찾으시였다.

동석식사실이며 주방칸 등을 료해하고나신 그이께서는 식당밖에 별도로 꾸려놓은 불고기식사실도 돌아보시였다.

그런데 그때 불고기식사실은 방금 식사가 끝난 뒤여서 정돈도 제대로 되여있지 않은 상태였다. 식당일군은 거기에만 마음을 쓰다보니 그이께서 한참 서계시는데 의자에 앉으시라고 한마디 말씀조차 올리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식당일군에게 배풍을 어떻게 하는가고, 배풍관을 우로 뽑아야 하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배풍관을 밑으로 뽑게 하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이 3. 8국제부녀절이여서 어느 한 성기관일군들이 불고기감을 준비해가지고와서 국제경기에서 우승한 녀성마라손선수와 식사를 한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더니 《불고기하던것을 내가 와서 내쫓지 않았소?》라고 롱섞인 어조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선수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다심한 사랑을 느끼며 일군이 식사는 이미 다 끝냈는데 정리를 못했다고 죄송스러워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그의 마음을 눅쳐주시였다.

버섯재배기술에서 세계패권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중앙버섯연구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 연구소는 인민생활향상에 그토록 마음쓰시며 버섯재배와 생산에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버섯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버섯원종장, 버섯연구중심으로 될수 있는 과학연구기지를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에 의하여 일떠선 연구소였다.

그이께서는 연구소를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자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버섯생산을 공업화할데 대한 문제, 버섯생산의 대용원료문제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이버섯인공재배기술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함경북도를 비롯한 우리 나라 동북부 산간지대에서는 송이버섯이 많이 자라는데 특히 칠보산의 송이버섯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자신께서 오래전에 크고 멋있는 선물지함을 하나 받은적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멋있어서 지함을 풀어보니 솔잎이 가득

차있는 속에 자그마한 송이버섯이 하나 들어있어 깜짝 놀랐댔다고, 그때 자신께서 송이버섯이 이렇게 귀한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는 이야기도 웃으시며 들려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그이께서는 지금 송이버섯인공재배기술을 연구하고있는 나라들은 있지만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한다는데 우리가 송이버섯인공재배기술에서 성공하면 그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자신께서는 중앙버섯연구소 연구사들이 송이버섯인공재배를 꼭 성공시켜 버섯재배기술에서 세계의 패권을 쥘것을 호소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받아도 일없는 혹평

례년에 없는 고온현상으로 하여 32℃까지 달아오르던 어느해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시였다.

기업소의 생산정형이며 경영활동 등에 대하여 료해하신 후 그이께서 련합기업소의 부업기지를 돌아보실 때였다.

먼저 온실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온실에 오이가

주렁주렁 달린것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고, 온실의 온도를 비료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리용하여 보장한다면 좋다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은 생산성과와 직결되여있다고, 생산에 앞서 후방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기업소에서 축산기지를 잘 꾸렸다고 하는데 돌아보자고 하시면서 4층으로 된 오리와 돼지호동들을 둘러보시면서 오리사와 돼지사를 사람이 사는 다층살림집같이 현대적으로 건설하였다고, 착상을 잘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좌측호동에 있는 게사니와 칠면조, 닭을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축산기지건설과정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이 관료주의를 부린다는 소리까지 들었다는것을 아시고 로동계급을 위하여서는 그런 혹평을 받아도 일없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당위원회가 일을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만족하시여 우리 당(조선로동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이 련합기업소처럼 일할것을 바란다고, 후방사업을 앞세워야 생산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시였다.

제일 공정한 평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성군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실 때였다.

어느날 창성각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홀에 들어서시여 창성각이 어제보다 오늘이 희한하게 발전하였는데 래일에는 또 뒤떨어지게 되므로 한번 잘해놓았다고 하여 자만하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1층 식사실과 주방, 2층에 있는 전골과 불고기식탁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1층 1호식사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지금 식사실들이 비여있는데 인민들이 식사를 할 때 여기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걸 아쉽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성각의 운영정형을 료해하시고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제일 공정한 평가는 인민들의 목소리이라고,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다른 평가가 더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들이 좋아하게 하여야 한다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모든 사업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성각종업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창성각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앞으로도

인민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더 잘해나가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맨몸으로 들어와 살아도 될 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하과학자거리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실 때였다.

3호동 3현관 1층 1호살림집의 공동살림방과 부부살림방, 자녀살림방, 서재, 위생실을 비롯한 매 방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공동살림방의 쏘파에 앉으시여 몸소 전화기를 드시고 전화가 제대로 되는가를 알아보시였으며 과학자들의 살림집을 생활에 편리하게 잘 건설하였다고, 이만하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1층 2호살림집에도 들리시여 모든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과학자들에게 베풀어주는 당(조선로동당)의 사랑과 배려가 더 뜨겁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매 살림집들에 집주인들이 이사오면 쓸수 있게 가구를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완벽하게 갖추어놓았으니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펼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의 소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수물놀이장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실 때였다.

건설장에서 동행한 한 일군이 그이께 정중히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 문수물놀이장의 건설규모가 릉라인민유원지의 근 4배에 달할것 같습니다.》

그이의 존안에 희열에 넘친 기색이 피여올랐다.

문수물놀이장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물놀이장이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고 현대적인 물놀이장은 몇개 되지 않을거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리 자금이 많이 들고 품이 들더라도 우리 인민들에게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물놀이장이 완공되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할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이 일대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체육문화휴식터로 전변될것이며 문수지구의 풍치는 더욱 아름답게 변모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을 이

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훌륭한 물놀이장을 마련해 주려던 나의 소원이 멀지 않아 성취되게 되였습니다.

류다른 《개관식》

완공을 맞이한 문수물놀이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류다른 《개관식》이 진행되였다.

아직은 국가적인 준공행사가 있기 전인데 당(조선로동당)일군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중앙예술단체의 일군들이 이 《개관식》의 주인공이 되여 유쾌한 시간을 보내였다.

이날 전례없는 《개관식》을 조직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나절사이에만도 두차례나 물놀이장을 찾으시였다.

실내물놀이장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야외물놀이장으로 나오시다가 급강하물미끄럼대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몇몇 사람들이 물미끄럼대를 타고 쏜살같이 내려오는것을 보신것이였다.

한동안 그들의 모습을 주의깊게 보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물미끄럼대를 타는 사람들이 머

리뒤에 손을 얹고 타도 팔꿈치가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곳으로 다가가시였다.

이어 흐름식수조의 이음짬들을 찬찬히 여겨보신 그이께서는 물미끄럼대의 이음부를 잘 처리해서 인민들이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다시금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리시고도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심중한 음성으로 인민들이 리용할 때 상하지 않게 이음짬들이 제대로 되였는가 잘 보라고 오늘 일군들을 먼저 태워보는것이라고, 씨리콘으로 마감처리를 깨끗이 해서 인민들이 미끄럼대를 타면서 상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그 순간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것은 그이께서 국가적인 준공식에 앞서 왜 이런 류다른 《개관식》을 조직하시였는지 그 뜻을 깨달은데서 온 격동이였다.

도대항체육경기를 년례적으로

어느해 전국도대항체육경기(당시)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우리 당(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자고 하여도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우수한 선수후비들도 많이 키워낼수 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은 사회의 단합을 이룩하고 건전한 분위기를 세우는 면에서도 좋다. 해마다 도대항체육경기를 진행하여 도들에서 군중체육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으로 체육분위기를 세우도록 자극을 주어야 한다. 군중체육을 발전시키면 모든 근로자들이 튼튼한 몸으로 로동과 국방에도 적극 참가할수 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도대항체육경기를 년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 년례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도대항체육경기의 명칭을 전문체육단들의 경기대회와 구별되게 달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인민체육대회를 4년에 한번씩 진행하고있는데 년례적으로 진행하는 도대항체육경기의 명칭을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라고 하든가 《전국대중체육경기대회》라고 할수 있다.

도대항체육경기의 명칭뒤에는 경기가 진행되는 년도를 밝혀주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에 진행된 경기라

고 하면 《전국대중체육경기대회－13》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 도대항체육경기 상징마크도 잘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 도대항체육경기에서 진행할 경기종목을 잘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대항체육경기에 씨름과 바줄당기기 같은 민족체육종목들을 꼭 넣도록 하여야 한다. 내가 이번에 도대항체육경기에 씨름종목을 넣으라고 하였는데 씨름경기에 유치원생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참가하니 볼재미가 있다. 도대항체육경기에 씨름종목을 넣기 잘하였다.

－ 앞으로 도대항체육경기에 전문체육종목도 잘 선정하여 넣고 체육오락경기종목도 재미있는것들을 더 넣도록 하여야 한다.

…

각 도소재지들에도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릉라인민유원지에 꾸려져있는 릉라립체률동영화관을 찾아주시

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화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설비들의 특성, 영화관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관람실들과 조종실, 편집실을 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립체률동영화관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5호관람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차원립체영화들인 《우승자》,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를 몸소 관람하시면서 동영상의 질과 음향효과, 률동상태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관람실들마다에서 상영하게 될 영화편수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관람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면서도 흥미를 돋굴수 있게 하자면 매 관람실앞에 영화간판을 게시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릉라립체률동영화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 있는것만큼 관람조직과 설비관리를 잘하여 영화관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주시였다.

- 평양시뿐만아니라 각 도소재지들에도 이와 같은 영화관들을 꾸려주어야 한다.

－각 도들에 립체률동영화관을 잘 건설하는것과 함께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의 지능을 계발시키고 용감성을 키워주며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특색있고 다양한 립체률동영화를 더 많이 제작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훌륭한 문화정서기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은 시종 밝으시였다.

무에서 유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련어양어사업소를 돌아보실 때였다.

사업소의 여러 공정들을 돌아보시며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고나신 그이께서는 선동칸안에도 몸소 들어가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다양어를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앞으로 양어의 미래를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고, 우리의 련어양어를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나는 어떻게 하나 장군님의 념원대로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탁우에 철갑상어와 바다련어, 칠색송어, 자라료리를 놓아주자고 한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사료가공장으로 가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내가 오늘 이 사업소에 와서 무엇보다 기쁜것은 두가지이다. 첫째로 기쁜것은 여기 북방땅에 와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바다양어라는 새로운 시대경을 펼쳐놓은 참된 애국자들을 만난것이고 둘째로 기쁜것은 련어가공장에서 가공된 련어에 조미료훈제액을 주입할 때 나는 숯냄새를 맡아보면서 멀지 않아 우리 인민들의 식탁에 훌륭한 련어가공품을 놓아주게 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것이다. 여기서 이룩된 성과는 결코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다 성공이라는 립장과 관점, 당(조선로동당)의 수산정책을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투철한 정신,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힘겨운 바다양어에 뛰여들어 날바다와 싸울 때 그 어떤 명예나 평가를 바랐다면 오늘과 같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없었을것이다. …

작아도 고추알공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해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여러가지 식료품이 폭포처럼 쏟아지고있다는 공장일군의 보고를 받으시고 걸작이라고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먼저 음료생산현장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생산된 여러가지 종류의 탄산단물들을 보시며 이곳에서 생산하는 음료가지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체육인음료도 생산하고있다는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몸소 세계적으로 이름난 체육음료의 이름도 대주시며 우리 체육선수들의 건강과 피로회복에 실지 도움이 되는 음료들을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빵생산현장에서 쵸콜레트단설기포장기앞에 이르시여 흐름선을 타고나오는 쵸콜레트단설기 한개를 몸소 손에 집어보기도 하시고 쵸콜레트단설기주입기, 단빵작업대와 구이로, 반죽기들도 돌아보시였으며 작업대앞에 놓여있는 각종 빵들을 보시면서 종류가 다양하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제품이 몇가지나 생산되는가고 물으시고 총 9종에 360여가지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보고를 들으시고는 대단히 많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효모빵생산현장에 들리시여 가득히 쌓여있는 각종 빵제품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하루 생산량이 5t이라는 보고를 들으시고는 대단하다고, 이 공장은 생산정상화가 잘되고있는 공장이라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였다.

생산된 각종 과자제품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이것이 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인가고 물으시였고 공장에서 여러가지 식료품을 하루평균 25t, 한해에 7 500t정도 생산하며 하루에 빵만 하여도 5t이나 생산하면 생산량이 정말 많다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작아도 고추알공장이라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였다.

도안을 앞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원신발공장을 찾아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류원신발공장에서 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신발의 질을 1980년

대나 1990년대의 수준에서 평가하려 하여서는 안된다고, 그때에 비하여 지금은 신발형태도 다양해졌으며 신발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요구수준도 계속 높아지고있다고 이르시였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질좋은 신발을 생산하려면 새 기술도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도안을 잘하려면 산업미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잘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류원신발공장에서 신발생산을 늘이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질좋은 신발을 생산하자면 도안을 앞세워야 한다고, 신발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신발공업발전의 세계적추세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당 부문에서 중앙산업미술지도국과 련계하여 신발도안을 선행시켜 류원신발공장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들을 많이 생산하게 하여야 한다고, 용도가 여러가지인 신발, 인민들이 먼저 찾는 신발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번호를 달아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화장품공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일군에게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의 보관기일이 몇개월인가고 물으시고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들의 보관기일이 6개월이면 짧다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화장품들의 보관기일은 3년정도이라고 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의 보관기일이 6개월밖에 안되는것은 상품포장을 할 때 밀페를 잘하지 못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그이께서 우리 나라에서 만드는 화장품의 생산실태에 대하여 너무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계시기때문이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와 취미가 서로 다르고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것만큼 그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화장품의 종류를 더 확대하고 같은 종류의 화장품도 사람들의 피부색과 기호에 따라 여러가지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입술연지도 사람들의 얼굴색과 입술색에 맞게 미를 돋굴수 있도록 여러가지 색갈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분크림이나 입술연지 같은것은 색갈이 서로 다르게 생산하는 조건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것을 쉽게 고를수 있게 번호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공업이 앞선 나라들에 나가 공장들을 참관하면서 배워야 한다고, 화장품공장에서는 현대적인 분석설비, 측정설비들을 차려놓고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뿐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화장품들도 분석하여보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구운 참김의 맛을 보아주시며

어느해 7월 중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김가공품의 가지수와 질, 가공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공장에서 인민들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고있는 건강식품인 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리시고나서 몸소 구이로에서 나오는 구운 참김의 맛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구운 참김, 가공김 등 가공품들의 맛이 좋다고, 김은 아이들의 성장발육에도 좋고 입맛을 돋구는데도 그저그

만이라고,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김을 길러왔다고, 우리 나라 참김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났다고 하시면서 김의 영양학적가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에서 현재 1차가공품인 판김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구워내는 방법으로 몇개의 가공품만을 생산하고있는데 김가루, 각종 조미김, 김졸임과 같은 여러가지 특색있는 가공품들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고작해서 구운 참김을 비롯한 몇가지 김가공품을 생산하는것으로 만족을 느끼던 자신들의 일본새를 돌이켜보았다.

약국의 감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찾으시여 종합조종실을 돌아보실 때였다.

종합조종실의 대형현시기에 현시된 통합생산체계구성도를 보시던 그이께서는 지금 공장들에서 통합생산체계를 받아들이는것이 일반화되고있는데 이제는 이 공장의 통합생산체계처럼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통합생산체계를 가지고 품질관리도 할수 있게 하

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실 이 공장의 통합생산체계도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구축해놓은것이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종합조종실에 생산공정조종과 경영관리 등을 과학화할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놓았다.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국수, 옥쌀, 과자, 단묵, 빵, 기름생산공정 등 모든 생산공정들의 설비들을 자동조종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공정의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자외선살균단, 나노빛촉매멸균단, 오존발생장치 등 무균화설비들을 자동조종하여 생산환경의 무균화, 무진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월, 주, 일별생산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경영관리를 과학화하고 생산현장들을 수시로 감시하면서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할수 있게 되였다.

공장일군에게 시선을 돌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의 통합생산체계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고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이 공장에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주었는데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약국의 감초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천도개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10월말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시기 위해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거창하면서도 화려하고 웅건장중하면서도 희한하게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거듭거듭 뇌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과학기술전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이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지난 시기에 출판된 과학기술도서들은 물론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세계 각국의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자도서화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꾸려진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거듭 치하의 말씀을 하시였다.

－ 과학기술전당에 방대한 자료기지를 구축하였을뿐만아니라 전자열람실들을 수많이 꾸려놓음으로써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과학기술을 배울수 있게 되였다.

－ 과학기술전당을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보급기지, 정보교류의 거점으로 일떠세운 결과 전국의 모든 과학연구부문,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가정들에서도 국내콤퓨터망으로 실시간 편리한 봉사를 받을수 있으며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서로 교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 기초과학기술관, 응용과학기술관, 지진체험실, 가상과학실험실 등 부문별실내과학기술전시장들에 조작형, 느낌형, 가동형의 전시물들을 전시하였으며 손접촉식콤퓨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재들을 갖추어놓은것은 물론 과학기술보급실과 열람장소들도 배합하여 꾸려놓음으로써 참관자들이 과학기술의 원리와 방법들을 깊이 체득할수 있게 되였다.

－ 과학기술전당에 미래의 에네르기구역, 과학유희구역 등으로 이루어진 야외과학기술전시장도 훌륭하게 건설하였다.

－ 중심홀에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인공지구위성운반로케트의 모형을 설치한것도 멋있고 태양빛과 지열 등 자연에네르기로 조명, 랭난방을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전당을 에네르기절약형건축물, 록

색건축물로 건설한것이 마음에 든다.

- 과학기술전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게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500석능력의 숙소도 호텔수준으로 건설하였다.

-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야외학습터도 멋있게 꾸리고 분수공원과 과학기술상징탑도 특색있게 건설하였으며 원림록화도 정말 잘했다.

…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쑥섬호안공사는 물론 쑥섬과 련결된 충성의 다리를 개건보수하고 과학기술전당으로 들어가는 인입다리도 손색없이 건설했으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무궤도전차도 다니게 하였는데 정말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숙소의 23층로대에 오르시여 과학기술전당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요란하오, 대단하오, 쑥섬에 천도개벽이 일어났소라고 되뇌이시였다.

정말 마음에 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양로원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합각지붕을 떠이고 조선식건축물로 솟아오른 양로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평양양로원이 멋있다. 지난 정월대보름날에 왔을 때에는 건물의 형태만 알리였는데 이렇게 완공하여놓으니 정말 희한하다. 양로원건물이 하나의 미술작품같다.

그이께서는 겉보기가 속보기라고 양로원 외부만 보아도 내부가 잘 꾸려졌을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로원의 내부와 외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겠다고 하시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양로원의 현관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신 그이께서는 현관입구바닥에 연마한 화강석을 깔았는데 보양생들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깔판을 깔아주어야 하겠다고, 깔판이 닳어지면 교체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침실을 돌아보시며 삼복철에도 방안이 선선한것을 보면 랭난방체계가 원만하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양로원의 실내온도를 이 정도로 보장하면 보양생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침실들의 방바닥에 지열에 의한 온수난방을 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늙은이들이 생활하는 침실은 방바닥이 뜨뜻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식사실에 들리시여서도 식탁아래바닥에 홈을 파주

었으니 보양생들이 다리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 식사를 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시였으며 장애자통로를 따로 꾸린데 대해서도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내정에 외랑을 건설하고 식탁들을 놓은데 대하여서와 치과치료실과 운동실, 도서실, 리발실, 미용실, 오락실, 목욕탕 지어 낚시터까지 보양생들의 신체적,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잘 꾸려진데 대하여서도 크게 치하하시였다.

특히 수경온실과 터밭을 잘 꾸려놓은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양로원에 꾸려진 수경온실과 터밭이 보양생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양로원 같은 건축물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바로 이것이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파십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7(2018)년 8월 중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사진행정형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고 호텔과 자취숙소, 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건설장전반을 돌아보시며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반적거리형성을 예술적으로 세련시킬데 대한 문제, 원림설계를 잘하고 그에 따라 조성할데 대한 문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세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다물을 끌어들여 인공못도 만들어놓았는데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자연미가 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못에 낚시터를 꾸리고 봉사시설도 갖추어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백사장의 해수욕구획들에 구급의료시설들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다 구비해주어야 한다고, 우리 나라의 경치좋고 아름다운 해변가들에 문화휴식터를 훌륭히 꾸려 인민들이 마음껏 향유하게 하려는것은 당(조선로동당)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사업이며 자신께서 제일 하고싶었던 사업중의 하나였는데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바라보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한적하고 이름뿐이였던 명사십리가 곧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기쁨과 랑

만의 십리해안으로 전변될것이라고, 앞으로는 명사십리가 인파십리가 될것 같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빵

어느해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 있는 개선빵집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먼저 중앙홀에 있는 매대를 어떻게 운영하고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른쪽의 식사칸으로 들어서시였다. 그러시고는 음식차림표와 함께 이 빵집에서 봉사하는 각종 음식들이 차려져있는 식탁앞으로 다가가시였다.

햄버거, 닭튀기, 감자튀기…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여러가지 빵과 료리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이곳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인민들이 어느 빵을 제일 좋아합니까?》

《햄버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흐뭇한 시선으로 햄버거를 여겨보시더니 일군들에게 지난해 우리 나라에 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햄버거를 맛보고는 맛

이 좋다고 하였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이곳 일군은 그처럼 바쁘신 그이께서 크지 않은 이 빵집에 대해 잘 알고계시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운명을 함께 하는 사람들

창전거리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건설장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1호동의 아래층에 있는 살림집에 모시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이께서 승강기에 오르시며 아빠트의 맨 웃층으로 올라가자고 하시는것이였다.

승강기문이 막 닫기고있을 때였다.

뒤따라오던 몇명의 수행일군들이 문앞에 이르러 주춤거리였다.

그들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승강기문을 다시 열게 하시고 그들더러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였다.

그러다나니 정원수가 초과되여 승강기는 불안스럽게 움직이였다.

불과 며칠전에 설치한 후 안전상태도 채 확인하

지 못한 승강기에 그것도 정원수가 초과된 상태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보니 건설장일군의 심장은 불안으로 졸아드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러한 일군의 마음을 눅쳐주시려는듯 웃음어린 어조로 승강기에 자신과 같이 탄 동무들은 운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며 어서 올라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얼마후 승강기는 20층에 멎어섰다.

유선증치료기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통일거리운동쎈터를 찾아주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녀성들이 리용할 기재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료해하시였다.

《저 기재는 무슨 기재요?》

그이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쎈터의 의사는 만능안마기인데 주로 녀성들의 몸매잡아주기, 비만증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녀성들의 유선증을 치료하는 기재는 없는가 알아보시였다.

의사가 그 기재를 가리키며 동작원리와 치료효과

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였다.

그의 설명을 들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이 기재를 잘 리용하여 녀성들의 유선증치료와 몸매가꾸기를 잘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병사들과 함께

《내 마음을 아는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해 5월 험한 먼길을 달리시여 인민군대에서 건설하고있는 어느 한 육종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골안 막바지에 있는 야외염소우리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때마침 방목나갔던 파울염소들이 떼를 지어 우리로 들어갔다.

《파울염소들이 참 멋있습니다.》

그이를 반기는듯 파울염소들은 우리앞에 우르르 모여들어 늘어진 넓은 귀를 흔들며 껑충껑충 재롱을 부리였다.

이때 한 일군이 우리에 들어가 하루전에 낳은 새끼염소를 안고나왔다.

갈색눈을 깜빡이는 새끼염소를 쓸어주시며 그이께서는 유쾌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 염소들이 군인들에게 하루빨리 고기를 정상

적으로 먹이고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속에 하시는 말씀이였지만 일군들의 눈굽은 찌릿해났다.

이때 별안간 새끼염소가 몸을 솟구며 《매－》 하고 울음을 터쳤다.

그이께서는 새끼염소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놈이 제법 내 마음을 아는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모두가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

차에 오르시려는 그이께 육종장의 일군은 이렇듯 험한 곳에 그이를 모신 죄송함을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육종장을 번듯하게 꾸려놓은 다음에 와서야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건설할 때 와보아야 애로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방도도 제시해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앞으로도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한평생 멀고 험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심정으로 이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곳들도 다 가보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길로 번듯하게

꾸려진 곳들만 다녀서는 언제 가도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없습니다.》

하늘의 꽃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친히 현지에 나오시였다.

비행장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초음속비행기를 타고 자유자재로 단독비행을 하는 처녀비행사들의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조금향, 림설동무들이 비행기를 잘 탑니다.》

그러시고는 처녀비행사들이 착륙하자 한번 더 비행하도록 하라고, 이번에는 리륙하여 좌측으로가 아니라 우측으로 선회하여 비행하도록 하라고 친히 비행훈련방안까지 제시하여주시였다.

그것은 처녀비행사들이 지금까지 진행하여오던 리착륙비행훈련방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안이였다.

그러나 처녀비행사들은 자신만만하게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들이 제시된 새로운 훈련방안대로 비행훈련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자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

였다.

《조금향, 림설동무들이 우측선회에 의한 단독비행을 성과적으로 하였는데 용습니다.》

비행훈련을 끌마친 그들이 엎어질듯 달려와 인사를 올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초음속전투기를 타고 단독비행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동무들을 축하한다고, 동무들이 오늘 비행훈련을 정말 잘하였다고 거듭 치하해주시며 이 동무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라고 일군들을 떠미시였다.

일군들이 안겨주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울고웃으며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들을 정찬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녀성의 몸으로 남자들도 타기 힘들어하는 초음속전투기를 탔다는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세계적으로도 녀성들이 초음속전투기를 타는 나라는 불과 몇개 나라밖에 없다고 하시며 기쁨에 넘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우리 나라에서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난 날입니다. 온 나라에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모두가 기뻐할것입니다. 조금향, 림설동무들은 초음속전투기를 타고 조국의 령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선군조선의 하늘의 꽃입니다.》

그러시고는 그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하여 기념사진

을 찍자고, 먼저 다같이 찍은 다음 따로따로도 찍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였다.

장래까지 걱정해주시며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종합병원을 찾으시여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군인들을 만나주시였다.

치료정형이며 호전상태 등을 일일이 료해하고나신 그이께서는 치료받고있는 군인들에게 동무네 군복을 벗을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군복을 절대로 벗으면 안된다고, 정치일군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병원의 책임일군에게 다짐을 받으시듯 물으시였다.

《이 동무들이 넉달이면 걸을수 있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확신성있게 올리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고 정이 끓는 시선으로 군인들을 일별하시던 그이께서는 좋다고, 무슨 일에서나 락천성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꿋꿋이 나가는것이 군사복무의 길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앞으로 넉달후에 제발로 걸어서 동무들이 찾아오라고, 기다리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의 장래는 내가 책임지고 다 풀어주겠소.》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

크나큰 감사의 정에 겨워 목메여 대답하던 그들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이어졌다.

그이께서도 격정이 북받치신듯 그들의 어깨에 올려놓은 손을 한동안 내리우지 못하시다가 마침내 문가로 돌아서시였다.

《자, 그럼 치료들을 잘 받소. 다시 만나기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군인들의 두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정말 장하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녀성포병들의 사격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불의에 녀성포병들에게 산비탈로 포를 끌어올릴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그들이 지정해주신 장소에 좌지를 정하였을 때에는 목표도 지적해주시고 지휘관에게 목표까지의 거리를 목측으로 잴데 대해서 등 정황을 주시였다.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녀성포병들은 신속히 목표를 조준하고 포탄을 장탄한 다음 《사격준비 끝!》 하고 힘차게 보고드렸다.

《얼마나 장한 녀성군인들이요. 정말 대단하오.》

녀성포병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이어 포사격이 시작되자 몸소 쌍안경을 드시였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목표는 순식간에 박살났다.

《명중이요, 명중. 목표를 완전히 박살냈소. 사격을 잘했소.》

명중포성의 메아리인듯 박수소리가 고지에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친히 박수까지 쳐주시였다.

지휘관은 장한 일을 하고 아버지에게 아뢰는 자식마냥 엎어질듯 그이께로 달려가 승리의 보고를 드리였다.

그의 보고를 들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장해. 목표를 완전히 박살냈소.》

그리시고는 지휘관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고나서 녀성포병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녀성포병들은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며 그이

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신채 녀성포병들의 어깨를 두드려주시고나서 지휘관에게 친히 손을 내미시였다.

지휘관은 송구스러워 잠시 망설이였다. 그것은 포탄에서 기름막을 제거하느라 손이 온통 기름투성이가 되여버렸기때문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조금도 허물하지 않으시고 지휘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데 이어 마지막군인의 손까지 일일이 잡아주시고나서 녀성포병들을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훈련을 잘했소. 정말 장하오. 대단하오.》

분에 넘치는 그 말씀에 녀성포병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물온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제인가 땅크부대를 찾으시여 어느 한 구분대를 돌아보실 때였다.

먼저 침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1층침대의 바닥을 손수 짚어보시며 구분대지휘관에게 물으시였다.

《지금 침실온도가 얼마요?》

수행한 일군이 침실온도가 그만하면 높은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지휘관들의 말을 들어보자고 하시며 다시 물으시였다.

《현재 침실온도는 몇℃요?》

《14℃입니다.》

지휘관의 솔직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시던 그이께서는 세면장으로 다가가시여 벽에 붙어있는 태양열물가열기자동수감부를 보시며 여기에 현시된 20이라는 수자는 무엇을 표시하는것인가고 물으시였다.

가열기안에 있는 물의 온도를 표시한것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세면장으로 들어가시였다.

타일을 붙인 산뜻한 벽면에 수도꼭지들이 주런이 붙어있고 그아래에 고운 색갈의 소랭이들이 놓여있는 세면장안은 정갈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수도꼭지를 틀고 나오는 물에 손을 대시였다. 물온도를 직접 가늠해보시려는것이였다.

한소랭이 또 한소랭이…

그이의 손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차거운 물이 소랭이에 넘쳐났으나 그이께서는 여전히 손을 떼지 않으신채 더운물이 나오기를 기다리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아직도 더운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수감부에는 물온도가 20℃라고 현시되여있었는데

실지 물온도는 그렇게 안되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한 지휘관이 관에 차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야 정확한 온도를 알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해가 잘 나는 날에는 물의 온도가 70~100℃까지 올라가는데 오늘은 해가 안나는데다가 군인들이 아침에 세면을 하면서 물을 다 퍼서 쓴 다음 새로 넣은 물이 아직 가열되지 않아 물온도가 높지 못한것 같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러면 래일 아침에 다시 와서 물온도를 재여보겠소.》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소묘작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항공 및 반항공군의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비행사들의 비행훈련모습이며 탁상훈련모습 등을 보아주시고 후방공급사업정형에 대해서까지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사들이 그린 소묘작품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연필화 《우리 중대 기타명수》를 가리키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철갑모를 쓰고 기타를 타는 처녀병사의 웃고있는

모습을 보시며 신통하다고, 아마 그의 《오빠》가 그렸을것이라고 유모아적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문창작가 못지 않다고, 인민군대에는 재간둥이들이 많고 미술창작가후비들이 많다고 말씀하시였다.

매겨주신 100점

어느해 대한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대련합부대지휘부의 직속중대를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중대교양실에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태양처럼 환하신 미소를 담으시고 교양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텔레비죤화면에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이 현시된것을 보시고 대뜸 노래를 부르려고 켜놓은것 같은데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함께 부르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병사들이 리용하는 수수한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노래를 3절까지 다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런데 노래반주기재의 조작실수로 점수가 평가되지 못하였다.

일순간 장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점수가 평가되지 않은것이 아

수하다고 하시며 잘 부른다고, 점수가 평가되였으면 아마 100점이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의 노래를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시고 100점이라고 말씀하시니 긴장되였던 군인들의 마음은 스르르 녹아내리였다.

따로 찍으신 기념사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끝난 후 대회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였다.

대회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녀성비행사들과 따로 사진을 찍읍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녀성비행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려왔다.

뜻밖의 영광에 격정을 금치 못하는 녀성비행사들을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맞아주신 그이께서는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또다시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부부비행사들과도 사진을 찍어야 하겠소.》

잠시후 그이의 앞으로 부부비행사들이 달려왔다.

《부부비행사들이요?》

《그렇습니다.》

낯익은 모습들을 일별하신 그이의 안광에 저으기 반가우신 빛이 떠올랐다.

《부부비행사들과 사진을 찍읍시다.》

이렇게 되여 일정계획에 없었던 사진촬영이 두차례나 더 진행되게 되였다.

이날 저녁 한 일군이 책망어린 어조로 녀성비행사들에게 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는데 왜 그렇게 무질서하게 서서 찍었는가고.

녀성비행사들의 대답이 걸작이였다.

《친아버지와 딸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데 왜 꽂꽂하게 찍겠습니까. 가족사진이야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습니까.》

털장화

어느해 정월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비행부대를 찾으시여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보아주신 후였다.

그이께서는 전투직일대기장소에 대하여 료해하시다가 문득 부대지휘관에게 물으시였다.

《겨울에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는 비행사들이 어떤 장화를 신고있소?》

《안에 털을 댄 장화를 신습니다.》

지휘관이 이렇게 말씀올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음을 놓지 못해하시며 말씀하시였다.

《비행사들이 신고있는 장화에 털을 댔기때문에 일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날씨가 추우면 발이 시릴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간곡한 어조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추운 겨울에 비행장에서 근무를 서보지 못하였으니 비행사들의 심정을 잘 모를수 있다고 하시며 비행사들에게 손발이 얼지 않도록 스키장갑 같은 장갑과 더 좋은 털장화를 공급해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150g이 드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섬방어대관하 한 중대를 돌아보실 때였다.

병실출입문의 높이며 세면장의 물보장실태, 침실의 창문크기와 문화오락기재, 체육기재들의 공급정형까지 일일이 관심하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섬방어대와 같이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구분대들에 의약품과 생활필수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어 중대식당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 중대장에게 물으시였다.

《지난해 콩을 얼마나 생산하였소?》

중대장은 군인 1인당 하루에 360g의 콩을 먹일수 있게 생산하였다고 자신있게 대답올렸다.

그이의 안광에 금시 환한 미소가 어리였다.

《360g?! 대단하오. 당정책이 훌륭히 집행된 중대요.》

그이께서는 풍성한 중대살림을 직접 보고싶으신듯 좁은 배식구를 통해 취사장안을 잠시 들여다보시다가 여기에서 보지 말고 들어가보자고 하시며 앞서 취사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물고기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취사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음식감들이 무드기 쌓여있는 조리대에 다가가시여 두부모를 가리키시며 두부모가 별로 커보인다고 만족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였다.

《두부 한모에 콩이 몇g 드는지 알고있는 동무가 있소?》

어느 누구도 그이의 물으심에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그이께서는 말문이 막히여 서로 마주보는 지휘관들을 보시며 가볍게 웃으시였다.

《150g이 드오. 그래서 내가 인민군대에서 콩을 군인 1인당 200g이상 먹일수 있게 생산하라는것이요.》

그러시면서 곁에 서있는 중대장에게 다심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두부로는 군인들에게 국을 끓여먹일수도 있고 모두부에 양념을 발라 먹일수도 있습니다. 두부를 1㎝ 두께로 썰어 돼지기름 같은데 지져먹으면 맛있습니다.

지휘관들은 군인들에게 음식을 다양하게 해먹이는데도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취사장바닥에 놓여있는 큼직한 망돌을 보시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중대에서 콩가공설비를 어떻게 해결하고있소?》

상급단위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체로 해결하기도 한다는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수행한 일군에게 이르시였다.

《군인들에게 콩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여 먹이자면 구분대들에 콩가공설비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콩가공설비를 만들어 공급하는 체계를 세울데 대해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류다른 기념사진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비행부대를 찾으시여 길영조영웅의 아들인 길훈비행사의 비행훈련을 몸소 보아주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길훈비행사의 비행훈련을 보아주신 후 동무는 영웅아버지처럼 비행사들의 본보기가 되고 전군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그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경집에서 색안경을 꺼내드시였다.

《내가 동무에게 주자고 이 색안경을 가지고 왔소.》

뜻밖에 안겨주시는 그이의 선물에 비행사만이 아닌 일군들모두가 어리둥절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답게 웃으시며 눈짓을 하시여서야 그는 색안경을 받아들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정말 … 고맙습니다.》

《자, 껴보시오.》

길훈비행사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꼈다. 비행모를 벗고 색안경을 낀 그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좋구만. 멋있어. 색안경을 끼고 나와 함께

사진을 찍자구.》

그이의 말씀에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비행기앞에 가서시여 길훈비행사를 부르시였다. 두눈은 검은색안경에 가리워졌지만 들먹이는 그의 어깨를 보고 누구나 그가 지금 감격에 겨워 울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과 색안경을 낀 비행사간에 류다른 기념사진이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사진 한장 보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제인가 어느 비행구분대의 독신비행사침실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침대맞은켠 벽면을 가리키시면서 이 벽면에 텔레비존을 걸어놓고 비행사들이 침대에 누워서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비행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라고 지휘관들에게 당부하시였다.

그리시고 벽면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시면서 독신비행사침실벽에 비행사들이 자기 가족과 학창시절의 동창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액틀에 넣어 걸어놓았는데 보기 좋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학교동창생과 찍은 사진을 가리키시

면서 책임비행사에게 여기에 있는것이 동무이라고 몸소 책임비행사의 모습도 찾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옆에 있는 녀동무는 애인이겠구만. 애인이 옳지?》라고 웃으며 물으시였다.

책임비행사가 아니라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애인 같은데.》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장내에 웃음꽃이 피였다.

책임비행사는 붉어진 얼굴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중학교동창생이라고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중학교동창생이라. 좋구만. 동창생사진을 보면서 학창시절을 추억하는것이 얼마나 좋소.》라고 못내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책임비행사에게 비행사들은 고향의 부모형제들과 동창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군사복무를 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식생활의 구석구석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중대의 식당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콩창고에 가득 쌓인 콩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저 콩 한알한알이 총탄 한발한발이라고, 콩

을 들여다볼수 있게 유리를 넣어 군인들이 복도로 오가면서 콩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놓은 콩을 보게 하였는데 잘하였다고, 군인들이 봄내여름내 애써 가꾸어 거두어들인 콩인데 한g도 허실하지 말고 그들이 다 소비하게 하여야 군인들스스로가 당(조선로동당)정책이 정당하다는것을 생활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앞으로 후방일군대회에서도 강조하자고 하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 못지 않게 보관과 수송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번에 내가 수산사업소에 나가 물고기보관을 수산사업소별로 하겠는가 지구별로 하겠는가, 랭동보관했던 물고기를 어떻게 구분대들에까지 수송해주겠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보라고 하였다고, 이것이 올해 후방부문사업에서 총화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이다고 말씀하시였다.

식당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식당을 깨끗하게 잘 꾸렸다고, 식당벽에 풍경화들을 붙이였는데 잘 그렸다고, 묘향산의 산주폭포를 그린 풍경화액틀이 좀 기울어진것 같은데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취사장에 들어가시여 차려놓은 음식이 요란하다고, 도루메기, 돼지고기도 있고 두부, 꽈배기도 있고 버섯도 있어 정말 흐뭇하다고, 수산, 축산, 콩농사를 잘할데 대한 당(조선로동당)의 3대열풍방침이 그대로 반영되였다고, 부대에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제때에 침투하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사업을 잘하고있다는것이 알린다고 말씀하시였고 조리대우에 놓여있는 도루메기를 보시고서는 도루메기가 작은것을 보니 처음에 잡은 도루메기인것 같다고, 군인들이 도루메기를 맛있게 먹게 하자면 가공을 잘하여야 한다고, 도루메기는 배식판에 무우편을 깔고 그우에 도루메기를 놓은 다음 쪄서 먹을수도 있고 간장에 졸이거나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겨먹을수도 있으며 꼬챙이에 꿰여 꾸둑꾸둑하게 말리워가지고 구워먹을수도 있다고, 콩음식도 가공을 잘하여야 한다고, 구분대들에서 콩을 가지고 비지나 두부, 콩밥만 해먹이다나니 이제는 물려서 군인들이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데 콩가공설비를 잘 보장해주고 여러가지 콩음식 방법을 알려주어 군인들에게 콩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친히 간장맛까지 보아주시고나서 간장맛이 구수하다고, 간장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고, 부대군인들에게 기초식품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가고, 동무들도 간장맛을 한번 보라고,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라고 지휘관들에게 말씀해주시였다.

전승렬사들의 묘주

주체101(2012)년 12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7월에 이어 또다시 일군들에게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인민군렬사묘들을 잘 꾸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에는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에 용약 떨쳐나선 유명무명의 렬사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이 깃들어있다고, 그들이 영웅적으로 싸웠기때문에 우리 조국을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희생된 인민군렬사들의 묘들에도 응당 묘주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묘주가 누가 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인데 바로 우리 당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명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가 되여야 합니다.》

숭고한 혁명적의리심을 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렬사묘의 위치선정으로부터 그 명칭을 잘 정하는 문제 그리고 건축형성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많아진 취사원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항공 및 반항공군의 어느 한 부대의 취사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취사장을 돌아보고나시여 얼마쯤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시는 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차마 헤여지기 아쉬워 눈물을 쏟고있는 취사원들의 모습을 정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수고하는 취사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시고는 부대지휘관에게 《취사원동무들을 오라고 하시오.》라고 이르시였다.

《알았습니다.》

부대지휘관은 목이 꽉 메여 가까스로 대답올렸다.

부대지휘관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자 취사원들속에서는 약속이나 한것처럼 《야!》하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어떤 취사원들은 너무 좋아 콩당콩당 뛰며 《만세!》를 부르기까지 하였다.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사진찍을 장소를 고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실로 가시여

세번째 줄 첫 식탁을 마주하고 앉으시며 《여기서 사진을 찍기요.》라고 하시였다.

그이께로 달려가 빙 둘러선 취사원들은 자세를 바로한다, 몸차림새를 본다 하면서 한동안 법석이였다.

그러는 그들을 웃음어린 시선으로 여겨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취사장에 서있을 때에는 취사원들이 몇명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여 이렇게 많아졌소.

그이의 말씀에 긴장이 풀린 취사원들의 얼굴마다에는 함박꽃같은 웃음이 활짝 피여났다.

이때 수행일군들이 식탁우에 놓여있는 조미료그릇들을 치우려고 하였다.

그것을 만류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그대로 놓아두시오. 식탁우에는 조미료그릇들이 있어야 더 어울리오.

이윽하여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이였다.

취사원들이 저마다 그이의 가까이에 서려고 붐비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향해 촬영가가 사진을 찍겠는데 촬영기를 보라고 탓하듯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지내 무엄하게 행동한것 같아 취사원들이 죄스러워 어쩔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이께서는 이번에도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사진을 찍을 때 촬영기를 보지 않으면 어디를 보겠소.

고향의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1년 365일 어느 하루도 쉬지 않고 군인들의 식사를 보장하고있는 취사원들이 너무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우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웃음어린 말씀으로 두둔해주시였던것이다.

《최고사령관이 뭘 해줄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처음으로 감나무중대 군인들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군인들의 생활형편이며 훈련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들이 출연한 예술소조공연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온 중대군인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터질듯 하였다.

울고웃으며 더욱 가까이 안겨드는 녀성군인들을 사랑넘친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 이렇게 물으시였다.

《최고사령관이 중대에 처음 왔지?》

《예.》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금싸래기처럼 아끼시던

감나무중대 군인들인데 최고사령관이 뭘 해줄가?》

《…》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이를 우러렀다.

《나와 한명씩 사진을 찍는것이 어떻소?》

중대지휘관은 물론 녀성군인들모두가 깜짝 놀랐다.

놀라움에 뒤이어 기쁨의 탄성이 터져올랐다.

《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없이 좋아라 그이품에 매여달리는 녀성군인들을 민망스럽게 바라보던 한 수행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중대군인들과 개별사진을 찍자면 오래동안 서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감나무중대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하루종일이라도 서있겠소. 갑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장서 잔디밭으로 향하시였다.

《우리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

멀리 흰파도가 밀려오는 바다가 솔밭에 서신 그이께서는 먼저 부중대장을 찾으시였다.

《부중대장과 먼저 찍읍시다.》

꿈같은 현실에 부중대장은 그저 눈물만 흘리며 달려가 그이곁에 섰다.

이어 중대군인들과의 기념촬영이 진행되였다.

녀성군인들은 경애하는 그이께 엎어질듯 달려가 그이의 팔을 꼭 껴안고 행복의 웃음을 활짝 피우며 사진을 찍었다.

한명 또 한명…

시간이 퍼그나 흘렀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전히 환히 웃으시며 군인들을 어서 오라 부르시였다.

사진촬영이 끝난 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중대장에게 이젠 사진을 다 찍었는가, 빠진 인원이 없는가 알아보시고나서 서운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오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과는 기념사진을 찍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꼭 다시 찾아와 사진을 찍겠소.》

부중대장은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의 마음까지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세면장의 더운물

어느해 정월, 제일 춥다는 대한날이였다.

바로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중대를 찾으시였다.

군인들의 생활을 일일이 료해하시던 그이께서 세면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한동안 물탕크의 물온도를 가늠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만하면 괜찮아.》라고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물을 어떻게 덥히는가고 중대지휘관에게 물으시였다.

《중대교양실에 있는 무동력보이라에 련결한 관으로 덥힙니다.》

《그렇게 하니 얼마나 좋소. 잘하였소.》

장한 일을 한 자식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듯 중대지휘관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여겨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사시절에는 군인들이 추위를 극복하기 매우 힘들어한다고, 특히 아침에 군인들이 찬물로 세면할 때 선뜩선뜩한것을 제일 싫어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시금 물탕크에 손을 잠그시였다.

곁에 선 수행일군이 급히 손수건을 드렸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시고 젖은 손을 그대로 외투주머니에 넣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탕크에 가득찬 더운물을 더없이 만족하게 보고 또 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이 겨울에 찬물로 세면을 하고 손발을 씻자면 으쓱하겠는데 이렇게 더운물을 쓰게 되였으니 좋아할것입니다.》

더운 김이 피여오르는 물탕크에서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세면장물탕크에서 더운 김이 물물 나는구만. 더운 김이 오르는것을 촬영하면 멋있을것 같소. 아마 지금까지 더운 김을 촬영한 장면은 없을것이요.》

만시름을 놓고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수행한 일군들의 얼굴에도, 중대지휘관들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피여났다.

고향집어머니 심정으로

어느해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전연의 판문점초소를 찾으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정세가 이만저만 팽팽한 때가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여유작작하게 판문점초소 군인들과 기념촬영도 하시고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일일이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초소의 취사장을 찾으시였다.

조리대우에는 고기와 물고기를 비롯하여 갖가지 식찬들이 푸짐히 올라있었다.

그이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취사원들에게 물으시였다.

《군인들이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오?》

《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고기를 하루에 300g씩 먹어도 성차하지 않지.》

《예, 그렇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먹이오?》

《고기국을 끓여주기도 하고 편육도 줍니다.》

취사원들이 겨끔내기로 올리는 대답에 그이께서는 만족하신듯 환히 웃으시며 좋은 일이라고,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료리를 다양하게 해먹여야 한다고, 한가지 음식이라도 더 맛있게 만들어먹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당부하시였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취사원동무들이 고향집어머니의 심정으로 전초병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기 바랍니다.》

그러시며 취사원들의 손을 일일이 다정하게 잡아주신 후 그이께서는 취사장을 나서시였다.

첫돌생일선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재도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장재도초소의 중대를 돌아보신 후 그이께서는 한

지휘관의 집을 방문하시였다.

그이께서 장재도에 처음 오시였을 때 친히 안고 사진을 찍어주신 어린 주인공 항명의 집이였다.

항명의 집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항명의 어머니에게 살림살이형편이랑 알아보고나시여 벽에 모셔져있는 기념사진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이윽토록 사진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내가 지난해 섬에 와서 항명이를 안고 군인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라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그리시고 사진속의 항명이를 가리키시며 《이때가 6개월때지?》라고 하시고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항명이의 얼굴을 여겨보시며 그사이 모색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어제가 항명이의 첫돌이라는것을 알고 날을 맞추어 오려고 하였지만 시간을 낼수 없어 오늘에야 왔습니다. 항명이의 첫돌을 축하하여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왔습니다.》

항명이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가슴속에 감격은 가득한데 그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지 알수 없어 항명의 어머니는 그저 고맙다는 말씀만 계속 드리였다.

아직은 자기가 어떤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고있는

지 알수 없는 항명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는 항명이의 볼을 다독여주시며 그이께서는 항명의 어머니에게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항명이를 잘 키워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항명이를 꼭 훌륭한 총대 병사로 키우겠습니다.》

항명의 어머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마음속결심을 아뢰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누워서 보겠습니까?》

주체102(2013)년 6월 9일 일요일이였다.

평양국제축구학교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이 학교를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 침실을 돌아보실 때였다. 침실들을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꾸려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화제를 바꾸시여 학교일군에게 물으시였다.

《이제 통신망이 구축되면 학생들에게 통신자료들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침실과 교실, 휴식장소 등에 텔레비존을 설치하고 임의의 장소에서 보게 하려고 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침대에 비스듬히 눕는 자세를 해보이며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누워서 보겠습니까?》

그바람에 주변에는 웃음판이 펼쳐졌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웃음을 거두시고 침실에서 텔레비죤으로 축구와 관련한 자료를 보게 하는것은 좋을것 같지 않다고, 학교에 전자도서실과 같은 체육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주어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국제축구경기나 축구훈련, 축구기자재를 소개하는 자료들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비록 그이께서 미소를 담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였지만 일군의 가책은 컸다.

《머리가 숙어집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5(2016)년 4월 22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네번째로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 전망대에 오르시여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언제를 부감하시고 2호발전소언제와 2호물길굴을 지나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돌아보실 때였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전망대에 도착하시여 건설에 착공할 당시의 전경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진과 대비해보니 3호발전소지구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불굴의 투지를 지닌 우리 청년들이 아니고서는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얼어붙은 대지를 청춘의 뜨거운 심장으로 녹이면서 높고 험한 심산계곡에 언제를 쌓고 발전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에 머리가 숙어집니다.》

전해에 완공을 앞둔 1호발전소를 돌아보실 때에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된 청년들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시던 그이께서 오늘 또다시 이렇게 뇌이실 때 돌격대일군들은 간고하였던 3호발전소건설의 나날들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는지 모른다.

반년도 안되는 나날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보면 지나온 10여년과도 맞먹는 투쟁의 나날, 잊을수 없는 성장의 나날이였다.

1호, 2호발전소를 완공하던 때와는 달리 강산이 온통 흰눈으로 뒤덮이고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대지를 땡땡 얼구는 북방의 엄혹한 기후조건, 불리한 겨울철수송조건…

그러나 청년들은 또다시 천험의 산발을 짓누르며 대격전장을 펼치고 백두의 칼바람정신, 영웅적투쟁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3호발전소언제를 그처럼 짧

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웠던것이다.

그것이 못내 대견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청년강국》, 《청년돌격정신》, 《영웅청년신화》, 《선군청년문화》라는 새로운 시대어들이 나왔다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1년사이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는데 이것만 보아도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며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청년들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랑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키우신 청년들이 우리 당(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되여있는 한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청년교양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리시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른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백두산영웅청년발

전소를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선언하듯 말씀하시였다.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시대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였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신 친필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치원어린이들이 올린 편지까지 보아주시고 육친의 정이 차넘치는 친필들을 보내주시였다.

그 일부를 펼쳐본다.

《리향아! 더 밝고 아름답게 자라 훌륭한 조선의 딸이 되거라.

김 정 은

2012년 6월 27일》

《편지와 사진을 기쁘게 받아보았다. 앞으로 훌륭한 재능을 더 활짝 꽃펴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거라.

김 정 은

2012년 9월 13일》

《너의 뛰여난 재간을 보고 정말 놀랐다. 정말 훌륭해! 100점, 만점이다.

김 정 은

2012년 10월 10일》

《공부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거라!

김 정 은

2012년 10월 26일》

《너의 뛰여난 재능을 더 활짝 꽃피우거라!

김 정 은

2012. 11. 15》

《어서 빨리 훌륭히 자라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인민군대가 되거라.

2012년 9월 27일

김 정 은》

《수연아!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백점, 만점이다!

2012년 6월 13일

김 정 은》

《준혁아! 기특한 일을 했다. 정말 대견하구나. 어서 빨리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자랑스러운 우리 준혁이에게 빨간별 5개를 준다.

2012. 10. 10

김 정 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신 친필들에는 그이의 숭고한 후대관이 담겨져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집으로

주체103(2014)년 2월 3일 평양애육원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의 애육원과 육아원을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새로 꾸릴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육아원과 애육원의 생활환경과 교육교양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올해에 진행하여야 할 중요대상건설이 많지만 육아원, 애육원을 세계적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생활환경과 교육교양조건을 비롯한 모든것이 원만하게 갖추어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집을 꾸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여 평양애육원과 육아원이 새로 일떠서게 되였다.

6.1절에 원아들을 찾으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해 국제아동절인 6월 1일 평양애육원 원아들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평양애육원에 좀더 일찍 나와보려고 하였는데 쑥섬에 건설할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장을 돌아보느라고 이제야 왔다고 나직이 말씀하시면서 이곳 일군들에게 원아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보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이 놀고있는 유희실에 들어서실 때였다.

유희실에서 놀던 원아들이 어느새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이께로 어푸러질듯 와르르 달려왔다.

그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넘어지겠다고, 덤비지 말라고 달래시였다.

이어 품을 파고들며 안기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한참이나 그들의 볼을 다독여주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희실안으로 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친아버지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자식들마냥 원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즐겁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가 끝나면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였으며 노래를 부르는 원아들이 나이에 비하여 좀 약한것 같다고 걱정해주시였다.

노래가 끝나자 그이께서는 어서들 다 오라고 손저어 부르시고는 원아들에게 무엇을 하며 놀았느냐, 맛있는것을 먹었느냐 하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원아들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말하였다. 사과, 배, 도마도, 낙지…

원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애육원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 원아들에게 꿩고기를 먹이려고 꿩을 가지고왔다고, 원아들에게 꿩고기완자를 만들어먹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이 약한 원아들에게는 공복에 꿀을 먹이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꿀을 한달동안만 먹이면 알 도리가 있다고, 공복에 꿀을 먹이면 소화흡수에도 좋고 면역도 높아진다고, 꿀을 찬물에 타서 먹여야 한다고 몸소 꿀먹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원아들에게 먹이려고 과일요구르트도 가지고왔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 과일요구르트에 손수 깔때기를 꽂아 녀자어린이에게 주시자 앞에 앉아있던 남자어린이가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응석을 부

리였다.

어린이의 응석을 달게 받아주시며 그이께서는 그 어린이의 깔때기도 꽂아주시였다.

그런데 뒤따라 여러 원아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저저마다 깔때기를 꽂아달라고 하는것이였다.

환한 미소속에 원아들의 모습을 정답게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다 꽂아주겠다고 하시며 어린이들의 요구르트에 깔때기를 하나하나 꽂아주시였다.

아버지앞에서 저마끔 응석을 부리는 형제들마냥 한가정에서만 볼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지능계발에 좋은 도서

어느해 양력설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의 지능놀이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그곳에서는 원아들이 수자맞추기와 쪼각그림맞추기를 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수자맞추기와 쪼각그림맞추기를 하는 어린이들이 모두 맞추기놀이를 잘한다고 칭찬하시였다. 아이들이 모두 똘똘하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그이께서는 지능놀이실의 책꽂이앞으로 다가서시여

《우리 말을 배워요》를 손수 꺼내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여기에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는데 필요한 책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육아원일군에게 아이들이 몇살부터 글을 읽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을 부르시여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을 많이 만들어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는 물론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의 실례까지 들어주시며 그것을 다 우리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잘 번역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시였다.

시간이 흘러 평양육아원을 다 돌아보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육원의 지능놀이실도 찾으시여 거기에 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애육원일군이 어린이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많다고 말씀드리며 한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뽑아 그이께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받아드시고 주의깊게 보시였다. 그리신 후 이번에는 자신께서 손수 다른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고르시여 한장한장 번져보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쁘신 어조로 말씀하시

였다.

지능놀이실에 도서들이 많다. 지능놀이실에 있는 《우리 말을 배워요》, 《생각해보자요》라는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는데 좋은 도서들이다. …

그이께서는 그림책을 손에 드신채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주체101(2012)년 11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인민야외빙상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린이들이 스케트를 타는것을 구경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스케트를 타고있는 어린이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면서 스케트를 타는 어린이들의 저 모습은 우리 나라 체육의 창창한 앞날을 내다볼수 있게 하는 좋은 풍경이라고, 현대적인 닭공장에서 닭알이 쏟아져나오는것처럼 앞으로 인민야외빙상장에서 빙상선수

후비들이 많이 나올것 같다고, 인민야외빙상장이 생겨 체육상이 덕을 보게 되였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아이들에게 다시 놀라고 이르시고 얼음판밖으로 나가실 때였다.

걸음을 못 떼고 한자리에 그냥 서있던 4살 난 한 어린이가 그이께로 막 달려갔다.

그러더니 그이품에 안기며 《원수님! 사진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응석을 부리였다.

뜻밖의 일에 일군들이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 애의 손을 잡으시고 얼음판에 다시 들어서시였다.

순간 빙상장의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모두 달려와 경애하는 원수님품에 안기였다.

이렇게 되여 은반우에 력사에 길이 전해질 사랑의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해 7월 중순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종합놀이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2층에 있는 종합놀이실을 잘 꾸렸습니다. 요란합니다.》라고 하시며 전번에 왔을 때 이 방을 종합놀이실로 꾸리겠다고 하기때문에 잡도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을 꾸려놓겠다는것인지 궁금하였는데 소꿉놀이칸, 병원놀이칸, 그림붙이기놀이칸, 조립놀이칸, 농촌풍경칸을 동심에 맞게 꾸려놓았다고 기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유치원의 일군이 병원놀이칸을 가리켜드리며 말씀올렸다.

《지금 여기서는 병원놀이를 하고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얀 위생복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꼬마의사가 간호원차림을 한 어린이와 함께 앉아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를 해주고있었다.

그것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병원놀이칸은 진짜 병원같이 꾸려놓았습니다. 병원놀이칸에서 어린이들이 진찰하는 시늉도 하고 치료하는 시늉도 하는데 제법입니다.》

그러시고나서 어린이들이 노는 모양을 한참동안이나 눈여겨보시던 그이께서는 꼬마의사앞으로 다가가시여 그 애의 볼을 다독여주시더니 자신의 팔소매를 올리시며 말씀하시였다.

《내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봐주렴.》

그 말씀에 방금전까지 의사흉내를 곧잘 내던 어린이는 동그란 두눈에 의문을 가득 담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이께서도 영문을 몰라하시며 유치원일군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오?》

일군이 어린이들이 아직 혈압이라는 말을 모르기때문에 진찰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알아듣는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꼬마의사에게 다시 물으시였다.

《어디가 아픈지 나도 한번 진찰해주렴.》

꼬마의사는 그제서야 청진기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팔에 대보고나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일군들에게로 돌아서시더니 진찰하는 어린이에게 내가 어디 아파하는것 같은가고 물으니 어디가 아픈가고 되물어본다고, 그런것을 보면 어린이들이 눈치가 말짱하다고 하시며 저희들끼리 놀 때에는 잘 놀던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와서 진찰을 해달라고 하니 어색해하고 있다고 정겨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값비싼 설비라 해도

비가 억수로 쏟아붓던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옥류아동병원건설장에 나오시였다.

건설정형이며 의료설비보장 등에 대해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해당 부문에서 의료설비들을 들여오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CT가 있는가, MRI설비는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현재 MRI설비가 없다는것과 그 가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대번에 아동병원에 MRI설비를 놓아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MRI설비 한대값이 300만US$가 되므로 너무 비싸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동병원에는 MRI설비를 갖추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동병원은 내가 마음먹고 건설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치료기지인것만큼 자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MRI설비를 무조건 갖추어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 CT설비 한대값이 100만US$인데 아동병원에 놓을 CT설비와 MRI

설비를 내가 해결해주겠다. 지금 자금이 넉넉치 못하여 아동병원을 꾸리는데 많은 자금을 해결해주지 못하였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CT설비와 MRI설비를 해결해주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개운하다. …

그이의 다심하신 말씀을 들으며 일군들은 격정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이때 내각총리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건성에서 아동병원에 구급차 3대, 경영차 2대를 해결해주는것으로 계획하였다고 보고드리였다.

그의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지금 보건성에서 아동병원에 쓸 구급소생차를 3대 준비하고있다는데 구급소생차 3대는 너무 적다고, 자신께서 구급소생차를 10대 해결해주겠다고, 구급소생차뿐아니라 아동병원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들은 자신께서 일식으로 다 해결해주자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필요한 설비, 예견하지 못한 설비들도 있을수 있는데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다 제기하라고 하시면서 아동병원은 당(조선로동당)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마음먹고 지어주는 병원인것만큼 병원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자신께서 다 해결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합격을 준 다음에

어느해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였을 때였다.

야영소의 실태를 일일이 료해하고나신 그이께서는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잘 먹고 마음껏 뛰놀아야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웃음소리가 더 높아지게 되며 온 나라가 밝아지게 된다고 하시며 소년단야영소들을 잘 운영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의 심장속에 후대관을 뚜렷이 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개건보수할것이 아니라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잘 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야영소를 21세기뿐아니라 22, 23세기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잘 꾸려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해 태양절까지 이 야영소를 번듯하게 꾸릴수 있게 야영소설계를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이 야영소를 설계할 설계집단을 보내주겠다고, 이 야영소는 자신께서 설계를 보고 합격을 준 다음 그대로 지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야영생들이 섭섭해한다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를 잘 지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고나서 문득 야영소일군들에게 지금 야영생들이 모두 어디에 갔는지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물으시였다.

야영생들이 등산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오후 5시경에야 등산을 끝내고 내려오게 되여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빨리 가서 야영생들을 다 데려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얼마후 등산길에 올랐던 야영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을 기다리고계신다는것을 알고 한달음에 그이품으로 달려와 안기였다.

꿈같은 행복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쏟고있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울지 말고 찍어야 사진이 잘된다고, 어서 눈물을 그치고 사진을 찍자고 달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렇게 되여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울리는 감동깊은 화폭이 또다시 펼쳐지게 되였던것이였다.

준공테프를 아이들이 끊게 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해 국제아동절인 6월 1일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육아원, 애육원을 세차례나 찾아주시며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진척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그이께서 준공식을 앞둔 때에도 육아원, 애육원건설정형과 교육교양문제 등을 일일이 료해하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떠나실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이 국제아동절인데 원산육아원, 애육원준공식을 빨리 하고 원아들을 입사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오늘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준공식을 진행할 때 준공테프를 아이들이 끊게 하자. 그래야 어른이 되여서도 자그마한 손으로 제 집의 테프를 끊고 들어서던 날을 일생토록 잊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것이다. …

그이의 사랑속에 얼마후 원아들은 자그마한 손으

로 준공테프를 끊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체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새 집에 들어서게 되였다.

특별주문을 해서라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개월사이에 천지개벽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돌아보실 때였다.

위성소학교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학교복도에 만들어놓은 옷걸이와 의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눈이 오고 비오는 날 아이들이 솜옷과 비옷을 옷걸이에 걸어놓을수 있어 좋고 또 아이들의 비옷과 솜옷을 가지고온 부모들이 의자에 앉아서 자식들을 기다릴수 있게 되였다고 부모들보다 더 기뻐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위성소학교와 위성초급중학교의 운동장에 심은 잔디를 보시고는 한창 자라는 장난세찬 아이들이 잔디를 심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밟으면 뜸자리처럼 되고 겨울철에는 관리하는것도 문제일것이라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리시고는 그렇다고 아이들을 운동장에 못 나가게 가두어놓겠는가고 웃으며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운동장에 맞는 인공잔디를 특별주문해서 전용으로 깔아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다. 후대교육사업에서는 부족한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운동장에 인공잔디를 깔아줄데 대한 대책까지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현지에서 하달하신 명령

주체103(2014)년 1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대규모의 수산물랭동시설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수산물랭동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 문득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꼭꼭 먹이려면 년

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는것이였다.

동행한 일군들과 해당 군부대의 일군들은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머나먼 바다가에까지 찾아오시다니…)

일군들이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고있는데 그이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맡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번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치과병원에서도 아이들생각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치과병원의 의료봉사실태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현지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어린이놀이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놀이장을 보시고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 아이들가운데 치료를 받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치료를 받고있는 부모들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다는데 바로 그런 경우를 예견하고 병원에 어린이놀이장을 꾸리도록 하였다고, 병원에 어린이놀이장을 꾸려놓게 하기 잘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발관리를 잘하도록 가르치는데서 부모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이발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학교에서 배워줄것만 바라지 말고 부모들이 항상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책걸상의 표준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있는 위성초급중학교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학교의 교실에 있는 책상들을 보아주실 때였다.

책상은 웃판을 열고 그안에 학생들이 자기 교과서와 학용품들을 넣게 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갑자기 한 일군에게 원주필을 달라고 하시는것이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원주필을 드리고 영문을 몰라 서로 마주보고있는데 그이께서는 원주필을 책상우에 놓고 웃판을 여시는것이였다.

순간 원주필이 굴러 책상앞으로 떨어졌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깨도되는바가 있었다.

죄책감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난세찬 아이들이 연필이나 원주필을 바닥에 떨구지 않게 책상에 턱이나 홈을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홈은 어떻게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의 책걸상을 표준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직승기착륙장

비바람이 세차던 주체102(2013)년 7월 16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중의 옥류아동병원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을 질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병원의 설비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으로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동병원은 당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마음먹고 지어주는 병원인것만큼 병원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해주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병원설계에서 첨단의료설비를 설치할 방을 예견하지 못하였는데 아동병원건설을 손색없이 잘하자고 하여도 병원에서 치료사업을 하게 될 운영자들과 전문기술일군들, 설계일군들과 시공일군들이 건설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를 담당한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여기에 직승기착륙장을 예견했습니까?》

《…》

전혀 뜻밖의 물으심이여서 그는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건설일군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원수님을 우러르는데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동병원과 같은 중요병원들에는 구급환자들을 후송할수 있는 직승기착륙장도 예견하여야 합니다. 설계에 직승기착륙장을 예견하지 못한것 같은데 앞으로는 직승기착륙장까지 예견하여야 합니다.》

뜨거운 정성을 바쳐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옥류아동병원의 의료봉사실태를 알아보시기 위해 이곳을 찾아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병원운영실태며 치료예방사업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문제 등을 료해하시고나서 병원일군들에게 의료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앓는 어린이들을 잘 치료해주어 그들모두를 나라의 기둥감으로 튼튼히 키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당(조선로동당)에서 마음먹고 건설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인 옥류아동병원이 명실공히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으로 되길 바라시는 숭고한 사랑이 어린 말씀이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지난해 적들은 우리가 필요한 의료설비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적들의 책동으로 하여 모든것이 부족하였지만 당에서는 옥류아동병원건설을 직접 틀어쥐고 내밀

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옥류아동병원의료일군들은 한평생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의료봉사활동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뜨거운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옥류아동병원이 선전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병원으로, 우리 당 보건정책이 인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병원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일화집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집필: 리남
편집: 최경희
장정: 최은혁　　교정: 채옥림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8(2019)년 10월

ㄱ-198241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